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기적

모든 것은 기적이다. 멀고 먼 시간으로부터의 나, 몰랐던 너, 깊어가는 영혼,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어제까지 없었던 한 편의 시, 마침내 보게 된 오늘, 어제와 다른 달…. 삶에 기적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기적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짙어가는 하늘 아래, 너와 나 모두 기적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내 이름은 이필구 上

"난 삐꾸가 아니라 필구라고!"

필구는 거울을 봤다. 금방 세수한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눈과 코와 입을, 눈썹과 뺨과 이마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작았다. 오른쪽 뺨이 왼쪽 뺨보다 불룩했다. 콧대도 왼쪽으로 조금 휜 것 같았다. 필구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른쪽과 왼쪽. 자신의 얼굴에서 완전하게 대칭을 이루는 부분은 어느 곳도 없었다.

'삐꾸야!'

누군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 같아 필구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필구를 삐꾸라고 불렀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의 가사를 바꿔 '삐꾸 주제가'를 만들었다.

'삐꾸 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지요. 눈도 삐꾸 코도 삐꾸 입도 삐꾸 삐꾸.'

필구는 그동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잘 생겼다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필구에게 얼굴은 그냥 얼굴이었다.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눈에 띄었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마주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다 이름 때문이야."

필구는 거울 속의 얼굴을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대요."

"갑자기 웬 개명신청?"

"저 이름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이름이 어때서?"

필구는 입을 다물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아침에는 가족 모두 정신이 없었다. 엄마는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출근 준비를 하느라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젖은 머리는 수건으로 둘둘 감겨 있었고, 한쪽 눈썹은 그리다 만 채였다. 밥을 먹는 사이사이 깨작거리는 우진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놓느라 손이 네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필구의 이름은 우송 스님이 지으셨다고 한다. 집안의 돌림자인 '구' 자를 넣느라 이름 짓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진이는? 우진이는 왜 우구나 진구가 아니라 우진이였을까. 굳이 돌림자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면 필구는 왜 돌림자를 넣어서 필구라고 지은 걸까.

필구는 할아버지 시대의 이름 같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결이나 소율이나 선빈이 같은 세련된 느낌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았다. 민규나 지성이, 동혁이처럼 흔해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구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필구는 엄마에게 왜 이름을 필구라고 지었느냐고 따졌다. 아무 데서나 방귀를 뽕뽕 뀌어대는 방귀쟁이가 아닌데도 이름 때문에 방구라고 불리는 게 억울해서였다.

"필구 이름에서는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

엄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뽕뽕뽕 방귀 뀌는 소리가 아니라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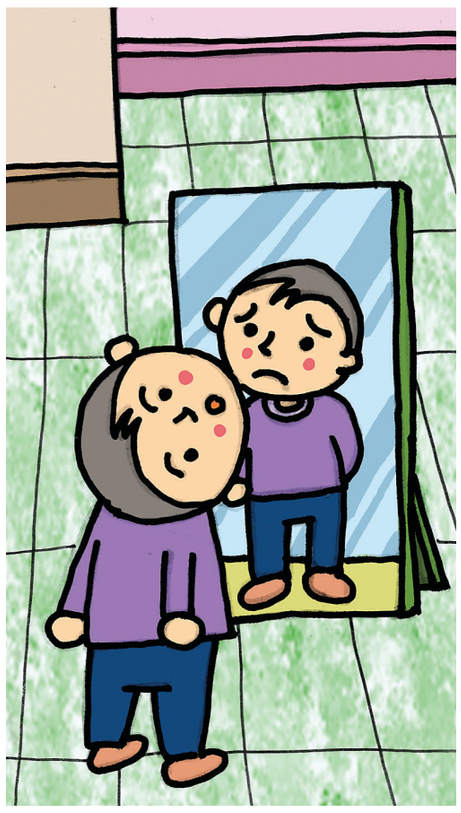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필구 이름의 필(泌)자에는 샘물이 졸졸 흐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다. 거세게 휘몰아치고 주위를 삼켜버리는 격류가 아니라 작은 골짜기에 돌돌돌 스며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소리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졸졸졸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 속의 물줄기는 가늘어졌고, 이제는 수맥까지 말라버렸는지 이름이나 별명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까지 싫어지는 기분이었다.

사실 듣기에 좋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별명은 거의 없었다. 별명이라는 것이 재미로 붙이는 거라 외모를 비하하든 성격을 과장하든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게 마련이었다.

최예린은 얼굴이 길쭉해서 마리아였다. 박주영은 엉덩이가 빵빵해서 오궁(오리 궁둥이), 행동이 느린 정은수는 나무늘보, 홍재민은 여자 같은 성격이라고 홍마담이라고 불렀다. 별명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름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었다. 김은지는 묵은지, 최원승은 원숭이, 지진희는 찌질이였다.

필구의 별명은 모두 '구' 자 돌림이었다. 5학년 때는 호구였다. 먹구, 똥구, 벼멸구, 영구, 팔구, 맹구, 짱구, 기억도 안 나는 '구' 자 별명들이 수도 없이 필구 주위를 맴돌다 떠났다. 필구는 그 별명들이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듣기에 싫든 좋든 아이들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의 별명은 곧 다른 별명에 묻혀 사라졌다. 아이들은 화를 내면 더 짓궂어졌고, 필구 자신도 별명 같은 거로 화를 내는 게 옹졸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삐꾸는 정말 싫었다. 삐꾸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 부족하고 삐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삐꾸라는 별명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정말 삐꾸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체육 시간은 필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구기 종목이든 육상 종목이든 체육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지난달에 높이뛰기를 할 때는 필구가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필구는 발바닥에 스프링을 단 것처럼 훌쩍 뛰어올라 가뿐하게 바를 넘었다.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육상선수 교육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해서 필구는 한층 더 우쭐해졌다.

이번 시간은 뜀틀이었다. 뜀틀 대가 3단으로 올라가자 여자아이들이 '어우~' 하고 탄성을 질렀다. 4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뜀틀을 말처럼 타고 앉았다. 5단으로 올라가자 구르기를 하다가 뜀틀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나왔다. 6단으로 올라갔을 때 체육을 잘하는 주영이도 엉덩이가 뜀틀 모서리에 걸리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체육관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필구 차례가 왔다. 필구는 힘차게 도움닫기를 했다. 구름판을 구르자 몸이 가볍게 튀어 올랐다. 뜀틀을 손으로 짚고 밀치며 몸을 앞으로 뻗었다. 성공이었다. 아이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기쁜 건 그때까지였다. 착지를 할 때 오른쪽 발목이 삐끗하며 넘어졌던 것이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체육관을 나가는데 뒤에서 주영이가 소리쳤다.

"어, 이삐꾸! 진짜 삐꾸됐네!"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필구는 빙글거리는 주영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필구는 주영이의 배 위에 앉아 있었고, 주영이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삐꾸라고 불러 봐. 그땐 정말 삐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계속〉

